

섬 치안 시스템 확 바꾼다

연륙·연도교 37곳 개통... 낙도초소 폐지 검문소·CCTV 설치 '목' 차단 방식으로

전남 도서(島嶼)지역의 치안활동이 올 연내에 크게 바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진 마량항~완도 고금도를 잇는 고금대교 등 연륙·연도교 37곳이 완공됨에 따라 섬 지역 치안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섬과 섬, 섬과 내륙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범죄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인 신안 압해대교 등 22곳의 연륙·연도교가 건설 중에 있으며, 48곳은 신규 개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도서지역 도로망까지 확충되면서 기존 낙도 중심 방범체계로는 승용차 등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범죄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전남청이 마련한 '낙도 초소 효율화 방안'은 여수 대경도 초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56곳의 낙도 초소 중 일부를 폐쇄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섬 지역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초소가 없어지는 낙도는 ▲연륙·연도교가 이미 개통되거나 개통 예정인 목포서 사옥도·교하도, 여수서 동도, 고흥서 소록도 ▲거주인구와 치안수요가 급감한 ▲목포서 마진도, 여수서 월호도, 영광서 송이분소 ▲육지와 가까운 해남서 하마도·어불도 초소 등 9곳이다.

이들 초소 폐쇄로 발생한 남은 인력은 신안 흥도 초소 등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섬에 집중 배치된다.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수 대경도·묘도·화태도 ▲영광 안마도

등의 4개 초소는 분소로 확대,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된다.

경찰은 또 ▲신안 압해대교(압해도~목포시) ▲신안 지도대교(지도~증도~사옥도) ▲완도 고금대교(강진 마량~완도 고금~약산) 등 3곳의 연륙·연도교에는 경찰 검문소를 설치하고, 치안수요가 적은 연륙·연도교에는 CCTV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외 전남 도서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지리 및 관광안내·여행객 휴대품 보관제·관광 홍보자료 배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연륙·연도교의 잇따른 개통으로 인한 도서치안 증가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 범죄 발생요인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주민을 위한 경찰 민원 및 치안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창구도 개설해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빠 빚 갚는데 5억원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이혼 안하게 해주세요”

충장로축제 '소망 터널'에 걸린 몽클한 동심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컴퓨터 게임에 빠져 부정만 부리는 줄 알았던 광주 동구지역 초등학교 11곳·어린이 집 40곳 1만1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바람을 금급공원 '소망 터널'에 매달았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교사·공무원·의사·축구선수... '아빠 로또 1등 당첨' '부모 빚을 갚게 5억원 달라'는 등의 소원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내심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인터넛 게임 아이템 받고 싶다’는 희망은 동심에서부터 ‘불처벌에 걸린 엄마가 안치됐으면’ ‘이혼하려는 부모를 말려달라’는 눈물겨운 사연까지...우리 아이들의 작은 소망은 충장로 축제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전시된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2명 법정구속

광주지법, 실형 선고

직장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찰 주지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1일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D사찰 주지 박모(59)씨와 S사찰 주지 전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조세정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성

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며 “박씨 등 2년여에 걸쳐 5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일부를 쟁긴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5년 12월5일 자신이 주지로서 사찰에 찾아온 기아자동차 직원에게 6만원을 받고 기부금액 515만원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위연말정산을 통해 세금포탈 개 하는 등 2005~2006년 동안 730여 장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5억여원의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류 위조 불법 대출 농협 직원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1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광주 D농협 전 대출담당 직원 조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공모해 대출금을 편취한 박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최모(43)씨에게 징역 6월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농협 직원임에도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관련 서류까지 위조하고 부당 대출금이 2억원이 넘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용감한 10대들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라. 응?”

지난 10일 오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Y PC방 1층 화장실. 20대 김모(20·장성군)씨가 흥기를 바다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주위엔 남녀 중학생 6명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둘러싸고 있었다.

‘얼뜨기 강도’ 김씨는 이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잠모(여·29)씨가 들어오자 문을 잠근 다음 흥기를 들어냈다. 현금 3만원을 빼앗긴 장씨는 김씨가 옷을 벗겨 강제로 성추행하려고 하자 비명을 질렀다.

여자 화장실 흥기강도·성추행범 도주 막고 신고... 경찰, 포상키로

순간, 밖에 있던 S중 3년 이모(15)양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게임 중이던 남학생 3명·여학생 2명 등 친구들을 불렀다. 이양 등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목에선 흥기 외에도 장갑과 테이프 등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강도·간강 등의 여죄를 조사 중이며, 그를 붙잡은 용감한 중학생들은 포상키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단

법원이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 5’가 저작권 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의 음원(音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업체와 한 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5’가 공유 금지요청받거나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다”며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저작권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간접 강제 명령도 내렸다.

연합스

성인오락실 단속 경찰 검찰, 수뢰 혐의 수사

광주지검은 사행성 성인 오락실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업무에서 금품을 뜯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현재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K경사가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업무에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329) 김장두



다들 권하하네! KCC

DS건설(주) KCC-청도, 영산, 도림, 대평

KCC청도, 시스템청도, 영산, 시공

▶ 010-5202-14-3001 ▶ 010-5202-14-3002

(주)본드나리 KCC-신리, 대평, 대평

신리, 방수, 철학, 타이브

▶ 010-5202-14-3001 ▶ 010-5202-14-3002

‘10대 연인’ 금은방 털며 전국 여행

○금은방을 털면서 전국 여행을 한 10대 연인이 범행 10여 개월 만에 들들.

○11일 광주 광안경찰에 따르면 김모(17·북구 오치동)군과 이모(18·광산구 월계동)양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해운대·서울·인천·포항·마산 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 금은방 120곳에서 2천여만원의 귀금속을 훔쳐 속삭비와 차비 등을 조달했다는 것.

○이들은 여행지에서 손님이 많은 곳을 노리고, 훔친 귀금속을 팔면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따돌렸다고.

○이양은 할인카드에서 떼어낸 숫자를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주인들을 속였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바꾼 통에 동일범을 추적해온 경찰에 걸리.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